

전남 해양·생태·음식 '관광상품' 으로

도 성과공유회, 청년 관광 기획자 개발·제작 80여개 상품 전시 수제맥주 등 35개 식품 제품·체험존에 녹차 발마사지 등 선보여

전남도가 지역의 새싹기업, 청년 관광기획자들과 함께 연구·개발한 관광 상품들이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전남도가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지난 13일 관광두레, 창업지원, 청춘어람 육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2022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성과공유회에는 전남도가 육성한 관광두레 25개 사업체, 창업기업 13개소, 청년기획자 5명과 일반 참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같이의 가치를 더하는 두레-창업-청춘 함께 모이장"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지난해 '관광두레-스타트업 캠프데이 페스타'에 이어 청춘어람 사업으로 양성한 섬-해양 관광 전문 청년 관광기획자까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해양·생태·음식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관

광두레 주민사업체와 도전과 열정으로 창업에 뛰어들어 관광 스타트업,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관광 기획자들은 직접 개발·제작한 80여개 상품을 한자리에 전시하며,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가감 없이 뽐냈다.

미식 공간에는 여수와 수제맥주, 고흥 수제유자콜라, 나주 절굿대 떡, 광양 봄 매실차, 구례 지리산 수제 양갱, 강진쌀로 만든 빵과 마카롱 등 35개 식품 제품이, 체험존에는 국내 1호 발마사지사 김수자 교수의 녹차 발마사지, 종가집 종부가 대접하는 죽로차와 다식, 사진 찍기 좋은 포토스팟 추천 어플, 페플라스틱 병뚜껑 업사이클링 체험 등이 선을 보였다.

김바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일반적 상품과 달리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개발한 관광 분야의 다양한 상품이 인

상 깊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이색적인 상품과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해 지역 소득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지역 관광의 토대가 되는 로컬 관광기업의 우수 제품을 알리고 상호 긴밀한 유대와 소통을 할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풍부한 관광상품과 체험거리로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으로 국도비 5억원을 들여 약 300여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8개 주민사업체를 육성·지원했다.

도비 4억원의 관광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신규 창업기업 10개소를 육성하고, 전년도 창업한 10개소에 대한 고도화 지원을 이어갔다.

또 전남의 섬-해양 관광에 특화된 전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청춘어람 사업(사업비 1억5000만원)을 통해 청년 관광기획자 13명을 양성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물 절약 캠페인 '효과'

월 1만 이상 사용 다량급수처 30곳 절수 등 낭비 요인 40% 줄여

광주시는 "수돗물을 월 1만톤 이상 사용하는 병원, 공장 등 다량급수처 30곳에서 수돗물 절수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는 수돗물 20%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11월 14일부터 옥내 수압을 낮추고 절수형 수도시설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돗물 아껴 쓰기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학교·병원 등 청사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수돗물 절약 안내방송과 직원교육을 통해 가문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절수형 수전헤드와 초절수형 변기로 교체, 화장실 세면대 수압조절, 양변기 저수조 불병 넣기 등으로 절수를 유도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간접 냉각수를 재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역세척 주기를 완화하고 세척물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세척수 수

압도 기준 3.5에서 2.1로 낮춰 수돗물 낭비 요인을 최대 40%까지 줄여나가고 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지하수 취수량을 20%까지 늘려 수돗물의 대체 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자치구에서도 수돗물 사용을 자제하고 지하수를 적극 사용하기 위해 현행 지하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 소요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단축했다.

이정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연말까지 생활 속 물 절약 20% 목표를 달성하면 내년 6월 장마철까지 제한급수 없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의 관심과 수도 계량기 밸브 수압 저감 등 생활 속 물 절약을 실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내년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3700명

전체 2만6788명 역대 최대...농어촌 인력난 해소 기대

내년 상반기 전남지역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37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올 것으로 집계됐다. 일손 구하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전남지역에 377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전체 도입 규모를 2만6788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인 1만2330명의 2.2배 가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남의 경우 19개 시·군에서 3773명의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는데, 완도(1009명)가 가장 많고 해남(396명), 고흥(311명), 보성(280명),

진도(277명), 함평(265명), 영암(220명), 나주(205명) 등이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그 외 이탈률이 높은 일부 국가도 1년간 근로자 송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송출 제한에도, 농·어가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성실 근로자 재입국은 허용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하라"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가 14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성과보고·대정부 촉구대회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보호종료 아동 지원 인력·예산 확대

시, 359억원 투입...주거지원 90호→150호 확대 등

광주시가 자립 준비 청년(보호종료 아동) 지원 인력과 예산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성장, 자립, 동행' 기조에 맞춰 3대 분야 14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관련 예산은 총 359억원으로, 올해(315억원)보다 44억원 늘었다.

광주시는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인력을 기존 7명

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장애아동 전담 상담 인력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아동 양육시설과 그룹홈 인력은 482명에서 503명으로, 자립 수당은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취업 교육·대학 교재비 지원, 기업·기관 연계 일자리 지원, 맞춤형 플랫폼 구축, 상담 창구 개설, 청년 아웃리치, 바랍게비 서포터즈 멘토링 지원 등 6개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에게 교재·학원비 등을 1년에 5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빚갚음 감사협의회, 전력 그룹감사협의회 등과 협력해 인턴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시 산하 기관, 공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10개 기관의 협약에 따라 광주 도시공사는 주거 지원을 기존 90호에서 민선 8기 내 150호로 확대한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자립 준비 청년이 혼자서 아닌 함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시와 지역 사회가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많은 시민이 동참해 자립 준비 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사전정보공표·원문공개 충실성 분야 성과 탁월

행정안전부 2021-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남도가 17개 시도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전남도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사전에 알리는 사전정보공표 분야와 투명한 행정의 척도인 공문서를 원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공개 충실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국민이 청구 요청 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가 지연 없이 적시에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처리 ▲정보공개 청구인의 만족도 수준을 보는 고객관리, 4개 분야 10개 지표로 나눠 이뤄졌다.

김기홍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전 공무원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수요자인 도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보고 후 13일 확정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